
아르헨티나, 바이러스와 대통령

호세 나탄손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남미 코노수르 지역 국장

원제와 출처: José Natanson, "Argentina, el virus y el presidente",
Nueva Sociedad, No. 287, mayo-junio de 2020, pp. 60-67.

핵심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외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 아르헨티나

『유럽인을 위한 페론주의에 대한 설명』이라는 있음직하지 않은 안내서의 제1장은 1940년대에 후안 도밍고 페론에 의해 창설된 이 운동을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리고 시대를 형성하려는 의지로 정의할 것이다. 페론주의는 시대의 특징을 반영하는 표상이기도 하고, 시대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려는 의도이기도 하다. 페론주의는 1940년대에는 포퓰리즘적이었고, 1970년대에는 혁명적이었으며,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적이었고, 2000년대에는 진보적이었다. 그래서 페론주의 연구자들은 ‘페론주의들(peronismos)’이라고 복수형을 사용하면서

페론주의를 숫자로 표현하길 선호한다. 어떤 이들은 세 개의 페론주의가 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페론주의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주장한다.¹⁾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창궐하고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전까지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정부는 마우리시오 마크리의 신자유주의적 운영을 계승한 엄격한 긴축 때문에 효능이 더디고 제약이 많은 페론주의였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사실상 그의 신경을 온통 사로잡은 국제통화기금(IMF) 및 민간 채권자들과의 재교섭에 치인 나머지 재정 운영의 방향을, 새로운 채무 협정을 신뢰하게끔 잡을 수밖에 없었다. 대규모 계획을 위한 가용 자금이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페르난데스 정부는 이전 정부의 조정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부문들에 배상 관련 대응을 하는 데 전념했다. 페르난데스 정부는 낙태의 합법화, 사법 개혁 같은 흥미로운 의제들을 탐색했지만 키르츠네르주의가 자신의 집권기에 인권을 위해 행한 싸움과 같은 의제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어떤 것이 페르난데스의 상징이 될까? 알베르토는 무슨 해군하사관학교(ESMA: Escuela Superior de Mecánica de la Armada)를 무슨 박물관으로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은,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군부 독재기에 고문 센터로 사용되었던 해군하사관학교를 ‘기억의 공간’으로 바꾸고 거기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과 관련된다.²⁾

2015년 대통령 선거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페론주의의 단일 후보로 입후보한 것은, 그가 압도적인 인기가 있어서도, 여러 분파 사이에서 내부의 인기를 얻어서도 아니며,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의 결정 때문이었다는

1) Alejandro Horowitz: *Los cuatro peronismos*, Planeta, Buenos Aires, 1990; Ricardo Sidicaro: *Los tres peronismos*, Siglo Veintiuno, Buenos Aires, 2002; v. tb. Alejandro Grimson: *¿Qué es el peronismo?*, Siglo Veintiuno, Buenos Aires, 2019.

2) V. *Le Monde diplomatique* edición Cono Sur No. 244, 10/2019.

점을 떠올리자.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페론주의의 그 어떤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야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의 광범위한 부문에서 완고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고, 바로 이 점이 마크리와의 돌발적인 2차 투표³⁾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위태롭게 했을 것이다. 이렇듯 바다가 천장(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곧잘 말하던 대로 “크리스티나 혼자만으로는 충분치 않지만 크리스티나 없이는 해낼 수 없다”)이라는 패를 자각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는 놀랍게도,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서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양보하고 부통령으로서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의 분별력과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의 감정적인 영향력을 결합한 ‘이성과 감성’이라는 슬로건은 페론주의 내부의 갈등을 풀고, 다른 후보들을 단일한 명부 뒤에 포함시키고, 1차 투표에서 마크리에게 손쉽게 승리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그러나 이 때문에 페르난데스가 평생 고수해온 행동 양식이 바뀌지는 않았다. 그는 아르헨티나 정치 시스템의 일원, 그것도 특히 두드러진 일원이고 정부의 고위직을 여러 번 수행한(그는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 정부의 총리였다) 정치 전문가지만 결코 선거에서 이기려고 아귀다툼을 한 적은 없었다. 그가 유세에서 보인 행보는 흠 잡을 데 없었고, 정치인에서 대선 후보로 신속하게 변신했지만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직 대통령 만큼 유권자와 정서적인 유대를 쌓는 것은 아직 요원했다. 그의 내각은 국정 운영 경험은 있되 비리 혐의가 없는(키르츠네르주의의 부족한 점 중 하나) 인물들, 연합의 복잡한 내부 균형을 고려하여 선택된 지도자들로 구성되었는데 큰 실책을 범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단한 업적을 보이지도 않았다.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 정부의 마지막 기간을 특징지은 과잉 내레이션, 즉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3) 선거에서, 요구되는 과반수 득표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을 때 제일 많은 표를 얻은 두 후보자간에 실시되는 투표를 가리킨다(역주).

인물의 일종의 ‘자아에 대한 문학’에 빠지지 않겠다는 의도적인 목적은, 동시에 새로운 서사시가 자리 잡지 못하게끔 했다. 말하자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의 정부는 선의를 지닌 정직한 정부이고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아직 어떤 총체적인 목표, 어떤 의미를 찾지는 못한 정부였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상황을 급진적으로 변화시켰고 페르난데스로 하여금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된 대응은 다음과 같다. 3월 11일,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대통령은 대규모 공연들을 일시 중지하고, 감염이 진행된 국가들에서 도착한 사람들을 의무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날에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 전국 중계방송을 통해 바이러스의 위험에 대해 국민들에게 경고했고, 의료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확진환자 수가 많은 국가들의 모든 항공편 운항을 일시 중지했다. 3일 후인 3월 15일에는 국경을 전면 봉쇄하고, 60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의무 휴가를 지급하며, 대중교통을 제한하고, 모든 단계의 수업을 일시 중지한다고 포고했다. 급기야 3월 19일에는 매우 엄격한 격리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공표했으며, 여기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식품, 에너지, 전기통신처럼 필수 노동으로 여겨지는 극히 적은 분야뿐이었다. 공연된 목표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초과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비한 의료 시스템을 준비하는 동안 바이러스의 전파를 늦추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페르난데스는 신속하게 대응했고 방향을 선택했다. 지금은 점점 더 강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것이 실행 가능한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다른 선택들이 있었다. 사실, 바로 당시에는 확인된 환자의 수가 더 늘어났는데도 반구의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 각기 다른 전략을 선택했고, 그런 국가의 대통령들은 짧은 기간이지만 ‘국제적인 부정론자’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국민에게 온전히 소비하는

부활절을 약속했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멕시코 국민에게 식당에서 모이고 서로 포옹하도록 권했으며 자신도 여러 공식 행사에서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브라질 국민에게 거리로 나갈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다(아르헨티나 인들이 이미 1주일째 밖에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머물러 있던 3월 16일에 보우소나루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벼운 독감’ 또는 ‘경미한 감기’처럼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전체에게 전면적인 격리를 실시한다고 발표한 날, 아르헨티나는 확진환자 97명과 사망자 2명을 기록했다. 바이러스가 도착한 지 최소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6일 전에야 같은 조치를 취한 스페인은 기록된 확진환자 수가 5,232명이었고, 같은 기간 동안 이탈리아 정부는 감염자가 9천 명을 넘었으며 그 중 463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여전히 여러 정부들이 건강과 경제 사이에서 망설이고, 공중위생이 받을 타격보다 한동안 모든 활동을 일시 정지하는 경제적 비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설이 유포되고 있었다. 반면, 최대한 신속하게 ‘집단 면역’를 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우는 정부들도 있었다(처음에,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격리 선언을 거부했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면역력을 형성하는 동안 유감스럽게도 어떤 사람들은 죽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후에 존슨 본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집중치료를 받아야 했다).

게다가 아르헨티나의 경우, 다른 개발도상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활동의 중단이 야기할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망설임은 더욱 증폭되었다. 약 40%의 비공식 부문 경제활동이 있는 상황에서, 고용 계약서도 없고 사회보장제도에 접근하지 못하는 35%의 노동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격리는 고정 임금을 받거나 저급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타격을 의미했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소형 건설업, 행사, 가사노동, 운송은 매일의 재생산에 의존하고 있

때문이다. 그리고 이 업종들의 운영은 결정적으로 현금으로 수행된다.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같은 대도시에서 현금 유통이 급격히 감소하면 이는 항의 시위를 유발할 것이고, 2001년 정부가 은행계좌에서 예금 인출을 제한하기로 결정했을 때 실제로 민중이 대규모로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사회적 폭력을 동반한 사건들을 불러일으킬 것이 우려되었다. 아울러 모든 수업을 일시 중지한다는 것은, 학교 식당에서 매일 점심을 먹는 수백만 명의 아이들에 대해 국가가 식품 원조를 중단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장 취약한 부문들과 직접적으로 교섭하는 사회개발부 공무원들, 주지사, 시장들은 이런 복잡한 상황에 주목하여, 엄격한 격리의 강요에 뒤따르는 위험을 지적했다.

다시 말해,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의 결정은 대안이 명확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항해해야 했던 순간에 할 수 있는 여러 결정 중의 하나였다. 정치학자 홀리오 부드르만이 설명한 것처럼,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통행을 제한하면 감염자의 곡선이 완만해지는 그 유명한 곡선 그래프는 뉴턴의 법칙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의론의 여지가 있는 통계학적 모델이다.⁴⁾ 결국 사실상 모든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든 국경을 폐쇄하고, 경제활동을 일시 중지하고 집안에 머무는 방법을 채택하겠지만 아르헨티나 정부는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실에 휩쓸리기 이전에 유럽 국가들이 시도한 계획처럼 보다 온건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고안하는 대신 전면적인 격리 전략을 택했다.

4) 《Burdman: 'Alberto Fernández está condenado a ser un estadista durante todo su mandato'》 en *El Economista*, 24/3/2020.

균열의 끝

정부는 자신의 결정이 내포하는 위험들을 의식하고서 격리가 사회적인 정당성을 획득해 확실히 이행되게끔 하고자 일련의 추가적인 조치들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우선, 정부는 여러 판단을 내릴 때 조언을 얻고자 아르헨티나의 주요 역학(疫學)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를 소집했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매스컴에서 격리 조치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즉, 정부가 아니라 ‘과학’이 말을 한다는 것이었다.

동시에, 사회 복지 사업에 대해 광범위한 노력을 전개했다. 소득이 더 적은 퇴직자들(3백만 명)과 육아 및 임신에 대한 보편 수당을 받는 사람들(자원이 적은 어머니들에게 소득을 이체하는 안으로 수혜자가 거의 4백만 명에 달한다)에게 특별 교환권을 지급하겠다고 선언했고, 아이들이 음식을 각 가정에 가져가도록 먹을거리를 배분하기 시작한 학교 식당에 음식이 무사히 도착하도록 보장했으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의 비공식 노동자들(8백만 명)을 대상으로 ‘긴급 가정 소득’이라는 새로운 원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런 노력에는 GDP의 약 1.3%에 달하는 다른 조치들이 포함되는데 그 목적은,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얻기 위해 일하러 나가야 해서 중산층처럼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서민들이 동네 안에 머물면서 격리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 필수 서비스도 없이 부대끼며 살기 때문에 방이 부족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3백만 명이나 되는 나라에서, 불안정한 5천 개의 주택단지(위급한 빈민가)들에서 “집안에 머무세요”라는 슬로건은 실제 존재할 수 없는 황당무계한 것이었다. 온 가족이 20제곱미터의 공간에서 함께 살거나 물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200미터나 떨어진 곳에 서는 집안에만 머무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가지 않도록 유도하면서 제3세계 판 격리인 ‘공동체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적어도 먹을거리만큼은 반드시 지급해야 했다.

이런 조치들이 동원되자, 지나치게 강압적인 정책에 호소할 필요 없이 소통과 통제만으로 집 안에 머물기가 이행되었고 시민 대다수가 격리를 찬성했다. 연금
을 수령하는 날 은행 앞에 기나긴 줄이 형성된 것처럼 과실도 있었지만 여러 설
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바에 의하면 격리 조치 시행에 대한 지지도는
매우 높았다. 행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부과한 재정 방
향 때문에 고삐를 꽉 조인 채 억제되어 있던 정부의 여러 부처가 드디어 존재 이
유를 찾기라도 한 것처럼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서로 연결되었다. 당국의
목소리를 하나로 집중시키겠다는 페르난데스 본인의 결단도 이 전략이 성공하는
데 기여했다. 사실상 매일 있었던 기자 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은 격리 조
치의 범위를 여러 번 설명하고, 감염자 수의 추이를 다룬 그래프를 제시하고, 다
른 국가들의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교육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예전에 마크리와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는 무뚝뚝한 어조로 호소하면서 아르헨티
나 사회의 행동에 대해 경고하곤 했다. 마크리는 지름길로 가려는 아르헨티나
사회의 성향 및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동작이 빠른 성향을, 크리스티나는 자기
특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이기주의를 질타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알
베르토는 전 세계적인 감염병 앞에서 아르헨티나 사회가 보인 대응에 대해 자랑
스럽게 여기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페르난데스 정부의 효율은 단순히 행정적인 민첩함과 뛰어난 소통능
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정치적 요소 또한 명백하게 작용했다. 이를 이해하
려면 최근 몇 년간 아르헨티나 정치가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두 개의 강력한
소수 집단 주위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소수 집단이란 바로
열광적인 키르츠네르주의와 맹렬한 야권 지지자들을 가리키는데 이 집단들은
유동적인 유권자를 우발적으로 규합하는 데엔 성공했지만 대다수의 대표를 안

정시킬 수는 없었다는 것을 드러냈다.⁵⁾ 이 소수 집단은 2011년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나 2015년 마크리처럼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었지만 심원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더욱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모으는 데에는 난항을 겪었다. 이러한 정치적 불모 상태, 이렇듯 무승부 형국이 고착된 상황을 아르헨티나에서는 균열이라고 칭했는데 바로 이 균열은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 전직 대통령이 대선후보 사퇴를 발표하고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를 선택했을 때 아물기 시작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지난 몇 년간 폭넓은 야권 연합의 선두에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의 계획이 양극화를 초래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곤 했다.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의 행보는 중도로의 선회, 온건에 대한 조짐, 키르츠네르주의에서 가장 분쟁적인 지점에 대한 암묵적인 자성(自省)을 시작했다는 의미였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선거 유세 도중 내세운 공약 중의 하나는 균열을 뒤로 하는 것이었고,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면서 타진과 대립하는 데 매몰되지 않은 채 보다 넓은 사회적, 정치적, 구역적 기반을 연결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솔 몬테로가 지적한 것처럼⁶⁾ ‘모두를 위한 전진(Vamos por Todo: 키르츠네르주의의 마지막 시기를 이끈 슬로건)’부터 ‘모두의 전선(Frente de Todos: 알베르토 페르난데스가 주도한 중도 좌파연합의 이름)’까지를 두루 아우르는 거버넌스 모델 말이다.

문제는 이런 추상적인 요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었다. 집권 후 첫 몇 달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는 키르츠네르주의의 대결주의와는 거리가 먼 운영 스타일을 선보였고, 라울 알폰신(사회 민주주의적 제안을 했지만 결국 실패한, 군부독재정권 이후의 민주주의 회복을 주도한 급진파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시켰으며, 정권을 잡기 전에 이룬 연합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5) Martín Rodríguez y Pablo Touzon: *La grieta desnuda*, Capital Intelectual, Buenos Aires, 2019.

6) *Le Monde diplomatique* edición Cono Sur, edición especial 11/2019.

아무리 해도 이러한 제안을 현실로 만들 방법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균열의 끝이 분쟁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미 유권자에게 똑같이 거부당한 두 개의 선택지를 절충할 수도 없었다. 키르츠네르주의와 마크리주의를 합쳐서 둘로 나눌 수는 없었던 것이다. 새로운 구심점을 찾고, 한 시대를 만들어내야 했다. 예기치 못한 전 세계적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이러한 진전이 가능해졌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혀 혼란스러워지자 진보주의는 공식적인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한 처벌적 관점을 옹호했고,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보다 강력한 행동을 취하길 요구했으며, 정부는 포괄적이고 개방적이지만 무르지 않은 태도로 위기를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했고, 경제 및 사회 인사들과 모든 정당의 주지사들을 소환했다. 그리고 파격적인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코로나19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3월 18일,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중요한 구역의 수장 두 명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바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지사이자 전직 경제부 장관이며 순전히 키르츠네르주의를 대표하는 악셀 키실로프와, 마크리의 오른팔이었으며 마크리의 뒤를 이어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이 된 오라시오 로드리게스 라레타다.

그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획득했다.⁷⁾ 키실로프와 로드리게스 라레타는, 기능상 통합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결정과 조치를 내리는 데 협력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단합하고 있다는 기색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키실로프는 야당 시장들과의 사진을 계획하면서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와 함께 한 장면을 그대로 반복했고, 로드리게스 라레타는 격리 기간 동안 연방정부가 저지른 두세 가지의 실

7) 《Encuesta: crece la imagen positiva de Alberto Fernández en medio de la pandemia》 en *Perfil*, 26/3/2020.

수(노인들이 은행에서 길게 줄을 늘어선 것과, 정부가 구입한 식품에서 적발된 바가지요금)에 대한 비판을 삼갔다. 그 사진은 마크리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츠네르의 치하에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던 것으로, 위기관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질겁한 아르헨티나 사회에 진정 효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행보는 파블로 토우손이 지적한 것처럼 부족한 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중국 정부 같은 감시 시스템과 중국 사회의 규율도 없고, 독일이나 한국처럼 대량 테스트를 실행할 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파편화⁸⁾되고 취약한 보건시스템을 염두에 둔 아르헨티나 정부는 때 이르고 엄격하며 긴 격리를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 정치에 호소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는 중세 시대 즈음부터 전 세계적인 감염병들에 계속해서 적용되어온 아날로그 방식의 해법이기도 하다.⁹⁾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시나리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최근 생각하기 시작한 조직 전체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아르헨티나 정치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지금은 예외적인 시기고, 지금 같은 상황도 다 지나갈 것이다. 언젠가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것이고, 그것은 이전과는 다른 생활이겠지만 새로운 지평에서 안정화될 것이다(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과거의 연장선—과거보다 개선

8) 파편화는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라틴아메리카 보건시스템의 특징인데 대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 서비스, 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 공공보건 문제를 보완하고자 중산층 이상이 이용하는 값비싼 민영의료 서비스로 나뉜다. 아르헨티나의 보건시스템은 공공의료보험, 사회노동보험, 민영의료보험, 포괄적 의료지원으로 파편화되어 있다(역주).

9) 《La política no puede fallar, el consenso sobre la cuarentena es lo único que tenemos》 en *La Capital*, 13/4/2020.

되거나 악화된 또는 과거를 이상화한 것—에 놓인 미래가 아니라 과거와는 전적으로 다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바이러스 국면’이 지나가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세상이 만들어낸 맥락에서 얻은 엄청난 인기로써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것이다. 단언하기는 이르지만 윤곽이 어느 정도 어렵듯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공격적 채무에 대해 재교섭을 단행하겠다는 결정이다. 교섭 내용에는 총체적 디폴트에 대한 우려 없이 한동안 국제통화기금(IMF)에의 지분을 전면 중지할 것과(국제통화기금은 이를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 보인다), 채권 소지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채무 면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우호적 교섭을 목적으로 ‘훌륭한 품행’을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교섭을 통해 재정적 목적이 유연해질 것이고, 전에는 금지되었던 공론정치의 장이 열릴 것이다. 공공사업, 각종 지원금과 신용 대출, 그리고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가정 소득처럼 위기 상황을 위해 즉석에서 내린 결정들의 가능성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수요를 부양할 조치들이 영구적인 정책으로, 아르헨티나 상황에 맞게 적용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임시적 보편 수입으로 전환되도록 말이다. 급진화를 넘어서 현재 관건은 이미 이루어낸 합의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바람의 방향을 예측하는 페로니즘의 역량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사회·경제적 ‘재건의 서사시’로 바꾸는 것이다.

조혜진 옮김